

사가에 당뇨소설 연재 신경장애 악화로 부부관계 위기?

글 쓴 이 / 다께다 하루오 · 우가가꾸병원 당뇨병센터장,
일본당뇨협회 이사

등장인물 / 요리다카하루끼선생(가공인물)·지하라다이중앙병원 당뇨병센터장
난또까나루(가공인물)·당뇨병 20년차, 혈당관리에 불성실,
치료중단도 여러번, 택시기사, 신장 170cm, 체중 63Kg의 보통체격, 58세



〈지난 줄거리〉

난또까 씨는 58세로 당뇨병 망막증에 의한 수술을 선고 받을 지경에 이르러 40세부터의 투병생활에 관한 기억의 실마리를 더듬기 시작했다. 발병 당시 초 그는 '가꾸베니'의 상사 사원이었으나, 48세에 멀리 떨어진 섬인 '남대도'에 전근을 명받아 '안심택시'의 운전기사로 전직했다. 그 후 좌반신의 마비와 탈진에 깜짝 놀랐으나 가벼운 신경장애였다.

아들 나리따로의 프로야구 입단 소동이 일단락된 어느 날 오랜만에 가족 전원이 모두 모여 단란한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외동딸인 나루요가 식사 때 별로 먹지 않고 "잘 먹었습니다"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놀란 나루사는 "나루요 무슨 일 있니? 속이 좋지 않니? 그리고 보니 어쩐지 좀 야윈 것 같구니!" 하고 물었다. 나루요는 "별일 없어요"라고 대답을 한 채 올라가 버렸다. 잇따라 아내가 하는 말이 "실은 여보 저 애가 요즘 농구부 캡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 날씬해지려고 최근 들어 심한 다이어트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도부도 제 마음대로 관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그는 "나리따로는 초지관철 꿈을 이루어냈는데, 나루요는 이제 올림픽의 꿈을 접었나" 하고 걱정이 들었지만 "여자에게 연애나 결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 할 수 없지"하고 납득했다.

그 날밤 나루사가 침실에 들어가니 먼저 들어와 있는 나루에가 "여보! 우리도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요즘 남이 된 듯 한 기분이 들어요, 왜 내가 싫어졌어요? 그렇지 않으면 땀 눈이라도 팔고 있는 건가요?"하고 질책을 하는 것이었다.

그는 "미안! 하는 일이 바뀌어서 최근에는 피로감이 빨리 와 전혀 그런 기분이 생기지 않아! 땀 눈질을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깐 좀 더 기다려줘요"하고 용서를 빌었다. 그러나 사실 그도 아내와 부부관계를 맺고 싶었지만 좀처럼 되지 않은 자신에게 초조해 있었다.

다음날 저녁 업무지도 담당의 아도노 씨로부터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다. 나루사는 마침 잘됐다 싶어 초대에 응했다. 아도노 씨는 매우 자상한 사람으로 뭐든지 상담해줘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이였다. 특히 그가 당뇨병에서도 선배인 것을 알고부터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다. 어느 정도 술을 주고받고 난 후 나루사

는 밤의 고민을 고백했다.

듣자마자 아도노 씨는 “그건 위험한데, 당뇨병에서 오는 신경합병증이 아닐까? 당뇨병을 깨끗이 치료하면 나올 수 있으나, 안되면 건강보험 혜택이 안 되는 비싼 비용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안돼”라고 대답했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런 증상이 나올 정도라면 발 끝에 궤양이나 괴저가 생기지 않았을까? 방치하면 나 같이 발가락을 절단해 버리고 말게 될 것이야” 하고 말하며 그는 양말을 벗어 엄지발가락이 없는 오른쪽 발을 보여주었다. 그것을 보고 놀란 나루사는 즉시 자기의 양말을 벗어 엄지 발가락을 체크했다.

그랬더니 좌측 발의 엄지 발가락의 측면에 물집이 터져 검게 된 곳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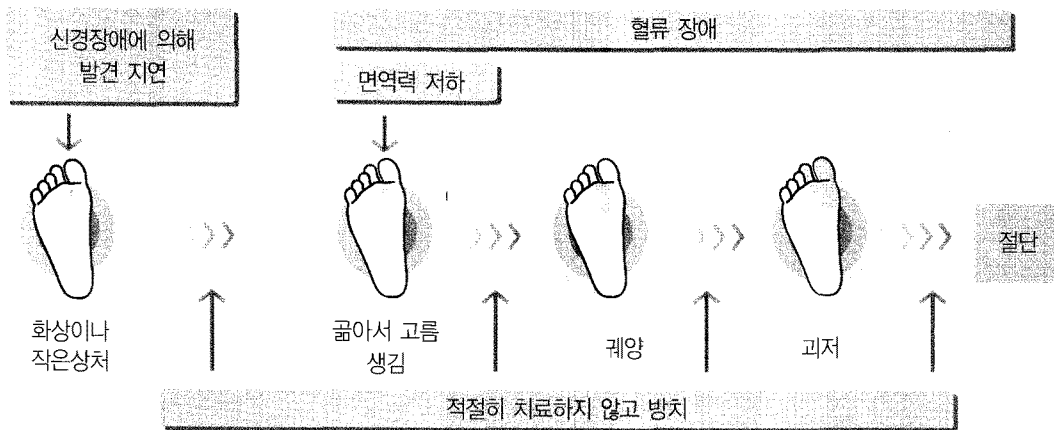
이튿날 아침 마찌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은 결과 당뇨병성 괴저 초기로 진단되어 링거 주사와 바르는 약으로 치료를 우선했다.

돌아오는 길에 나루사는 “아! 밤의 즐거움도 없어지고 발의 괴저까지 될 지경이면 앞날이 캄캄하구나!”라고 한탄하면서 “그래도 아직 괜찮겠지 양쪽 다 아직 초기 단계이니 이제부터 잘 치료하면 나을 확률이 많으니까”하며 스스로 위로했다.

요리다가 선생의 조언

당뇨병성 궤양이나 괴저는 악화되면 발가락을 절단하지 않을 수 없는 매우 무서운 합병증입니다. 당뇨병성 궤양이나 괴저의 진행방법을 그림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성 궤양이나 괴저의 진행방향



※ 당뇨병성 괴저 예방을 위한 발 관리 요령

1. 매일 발의 구석구석까지 주의 깊게 체크(겉과 속,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도)
2. 발을 청결하게 유지한다.(입욕 시에 발을 정성들여 씻고 닦는다. 크림을 바른다)
3. 화상에 주의한다.(입욕 전 온도확인, 휴대용 난로 주의, 뜨거운 불주머니 사용금지)
4. 발톱 손질은 신중히(바짝 자르는 것 피하고, 평평하게 일자로 자른다)
5. 언제나 양말을 신고 발을 보호한다.(상처, 물집 예방)
6. 발에 맞는 신발을 신는다.(하이힐이나 끝이 뾰족한 신은 피한다)
7. 금연한다.(담배는 동맥경화를 진전시켜 혈류장애를 악화시킨다)

출처/일본당뇨협회 월간지 さがえ 2010년 3월호 | 번역/이현수 회원